시금치 100%↑·명태 50%↑·갈치 46%↑

1월 한달 생활물가 엄청 뛰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가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52개 생활 필수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광주는 3.2% 올라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 3.3%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전남도 4.2%로 2008년 10월 4.6%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광주는 152개 품목 가운데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이 87개에 달했으며 내린 품목은 35개, 변동이 없는 품목은 30개에 불과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달 오른 품목만 95개였으며, 내린 품목은 31개, 변동이 없는 품목은 26개로 조사됐다.

생활물가는 소득증감에 관계없이 소비지출이 필요한 152개 기본 생필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표로, 서민들이 시장이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물건 구매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로 불린다.

생활물가는 광주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지난해 7월 -0.4%까지 떨어진 뒤 8월 0.5%, 9월 1.4%, 10월 1.1%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11월 2.0%, 12월 3.2%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전남도 작년 7월 0.2%에서 8월 1.1%, 9월 1.4%, 10월 1.1%로 안정세를 보여오던 생활물가가 11월 2.5%, 12월 3.2% 가파르게 상승했다.

물가 상승은 채소, 휘발유, 공업제품 등이 이끌었다.

시금치는 지난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광주가 100.3%, 전남이 86.7%가 올라 152개 조사 품목 중 최고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5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으로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광주, 전남의 배추값이 약 104%나 상승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광주는 명태(50.4%), 파(49.1%), 상추(30.2%), 토마토(27.8%), 조개(23.9%), 감자(23.5%), 국산 쇠고기(21.6%) 등이 생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전남의 경우 갈치(46.1%), 감자(45.4%), 상추(40.4%), 명태(32.6%), 조개(34.2%), 파(30.5%), 국산 쇠고기(25.9%) 등이 많이 올랐으며, 러닝셔츠(25.4), 남자팬티(20.3%) 등 공업제품도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또 광주, 전남 모두 한파의 영향으로 휘발유(26.7%, 25.9%), 경유(13.4%, 11.4%), 취사용 LPG(14.1%, 9.8%), 도시가스(7.3%, 6.9%), 등유(9.2%, 11.7%) 등 석유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생활물가는 전달에 비해서도 광주, 전남 모두 전달보다 0.4%씩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전남 생활물가 증감률 추이

〈단위:%·전년 동월 대비〉

〈자료:호남지방통계청〉

주요 생활물가 품목 상승률

〈단위:%·전년 동월 대비〉

광 주		전 남	
시금치	100.3	시금치	86.7
명태	50.4	갈치	46.1
파	49.1	감자	45.4
상추	30.2	상추	40.4
토마토	27.5	조개	34.2

〈자료: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 경기 낙관?

지난해 제조업 등 신설법인 3,574개
소규모 창업 늘어… 2001년이후 최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신설 법인 수가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법상 신규 법인 설립 조건인 최저 자본금제(5천만원)가 사실상 폐지된데다 경기낙관 분위기가 더 해진 덕분이다.

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09년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수는 3천574개로 전년도의 3천16개보다 18.5%(558개) 증가했다. 이는 과거 최다 신설법인 수를 기록했던 지난 2001년(3천726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자본금 규모별로는 최저 자본금제 폐지의 영향으로 2억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창업이 3천153개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이 1천728개로 전년(1천550개)보다 178개(11.5%) 증가했고 전남지역도 1천846개로 전년(1천466개)보다 380개(25.9%)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차금속 및 조립금속, 화합물·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100개가 늘어난 820개에 달했다. 건설업도 공공부문 발주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46개가 증가해 683개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211개가 늘어난 1천699개에 이르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차례상에 올리세요 4일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열린 국순당의 제례주인 '신도주' 출시행사에서 모델들이 신도주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축산부문평가 전국 1위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2009년 축산부문 종합 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4일 "농협중앙회가 전국 9개 도 단위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축산부문 종합 업적평가' 11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본부는 축산물 공동판매 실적에서 '지리산 순한한우'와 '녹색한우' 등 브랜드 축산물의 판매신장을 토대로 전년보다 30% 증가한 4천750억원을 달성했고, 전년 7천682억원이던 경제사업도 구매와 가공사업 등의 꾸준한 성장에 따라 9천107억원을 기록했다.

또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부문에서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농협을 20개에서 29개로 확대한데 이어 축산기자재 공동구매액을 18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려 성과를 인정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뱃돈 저축 하고 우대금리도 챙기고

0.2% 추가… 효도 송금 수수료 면제
광주은행 설 맞이 고객 사은 대잔치

"설 세뱃돈 저축하고 금리 혜택도 챙기세요."

광주은행은 4일 "설을 맞아 세뱃돈 저축 우대, '효도 송금' 수수료 면제 등 다채로운 고객 사은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우선 설 연휴가 끝난 16일~22일까지 세뱃돈으로 '플러스 다모아적금'과 'KJB 여니수니적금'에 신규 가입하는 만 20세 미만 고객에게 0.2%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들 상품은 1년제의 경우 현재 연 최고 4.6%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또 오는 8일~12일까지 광주은행 창구에서 부모님께 100만원 이하 금액을 타 은행으로 보낼 경우 송금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광주은행 본점을 비롯, 상무금융센터지점 PB센터, 순천지점, 목포지점 등에 있는 귀중품 보관 대여금고도 오는 19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금보관 서비스는 연휴 시작일인 13일 오후 3시~5시까지 광주지역 본점 영업부, 송정지점, 북구지점에서, 전남지역은 순천지점과 여수지점에서 각각 제공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